
 국토교통부		<b>보도 설명자료</b>		
담당 부서	수도권광역 급행철도팀	배포일시	2020. 12. 16.(수) 총 3매(본문2)	
		• 팀장 장창석, 사무관 박정란, 주무관 문선용 • ☎ (044) 201-3983, 3985	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‘덕정~수원’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본궤도… “정부 심의 통과”

- ‘21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… “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”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덕정~수원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민투심)를 1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는 A노선(파주~동탄)을 비롯해 B노선(송도~마석), C노선(덕정~수원) 총 238km로 계획됐다.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시속 200km(영업최고속도 시속 180km)의 초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- GTX-A, B, C 개통시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수도권 내 출·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% (약 2천만 명)가 직·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.
-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3개 노선 중 A노선 착공이후 두 번째로 C노선이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을 고시하고 ‘21년 4월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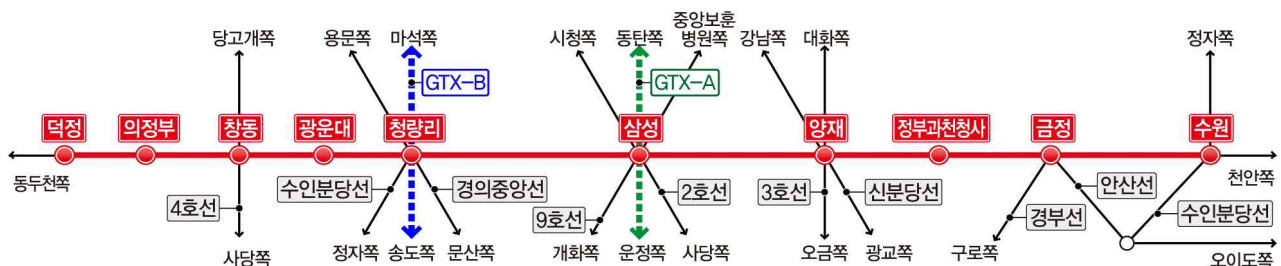
-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을 통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 GTX-C 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(BTO)으로 추진되며 10개 정거장, 사업비는 약 4조 3,857억원으로 추정된다.

- 또한,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추가 정거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는 GTX-C노선이 개통되면 덕정~삼성 구간은 82분에서 27분으로, 수원~삼성 구간은 71분에서 2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- GTX-C노선은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.

- 특히, GTX-A와 교차하는 삼성역, GTX-B가 교차하는 청량리역에서 동일승강장에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해 초단위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

□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"GTX-C 추진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 주민들이 삼성역, 청량리역 등 서울 도심에 비롯한 수도권내 주요 거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, GTX-C 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-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이달 말부터 국토부 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,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([www.kdi.re.kr](http://www.kdi.re.kr))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